



빗속 질주 24일 오후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열린 '2010 F1 코리아 그랑프리' 결승전에서 F1 머신들이 빗줄기를 뚫고 힘차게 질주하고 있다. /영암=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영암 F1 챔피언 페라리팀 알론소

페르난도 알론소(스페인·페라리)가 사상 최초로 한국 영암에서 열린 F1(포뮬러 원) 코리아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상보 18면>
알론소는 24일 영암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열린 '2010 포뮬러원 월드 챔피언십'(Formula 1 World Championship) 17라운드 경기에서 5.615km의 서킷 55바퀴(총 주행거리 308.825km)를 2시간48분20초810에 달려 포디엄 시상대에 올랐다.
전날 예선에서 3위로 들어온 알론소는 전체 55바퀴 가운데 45번째 바퀴를 돌 때까지도 예선 1위였던 제바스티안 페텔(독일·레드불)의 뒤를 따라 2위를 달렸으나 46번째 바퀴에서 추월에 성공했다.
페텔은 이후 엔진 고장으로 차가

멈춰서면서 레이스를 포기했다.
알론소는 이로써 시즌 개막전인 바레인 대회를 비롯, 독일·이탈리아·싱가포르에 이어 올해 5승째를 챙겼다. 총 점수도 231점으로 레이스를 포기한 마크 웨버를 제치고 단독 선두에 올라 세 번째 종합 우승도 노려볼 수 있게 됐다.
'F1 황제' 미하엘 슈마허(독일·메르세데스)는 4위로 들어와 5월 스페인, 터키 대회 4위에 이어 시즌 최고 성적을 냈다.
후반 이날 경기는 비가 큰 변수로 작용해 24명 가운데 9명이나 완주에 실패했다. 또 경기가 예정보다 10분 늦게 시작됐고 도중에 수차례 중단되기도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영암 F1 데뷔전 잘 치렀다

F1 코리아 그랑프리

관련기사 2·3·4·5·6·16·18면

흥행 우려 씻고 관중몰이 전남 서남권 국제화 성큼

줄기차게 내린 비도 '스피드 전사'들의 폭풍 질주를 막지는 못했다. 영암벌을 달렸던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코리아 그랑프리가 24일 성황리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사상 처음으로 국내에서, 그것도 지방도시인 영암에서 치러진 이번 F1 대회는 곳곳에 예상치 못한 활기를 불어넣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올림피아드와 함께 세계 3대 스포츠로 꼽히는 '모터스포츠의 꽃' F1 개최로 영암과 목포 등 전남 서부권 일대가 국제도시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는 평가도 받고 있다.
'2010 포뮬러원 월드 챔피언십'(Formula 1 World Championship) 코리아 그랑프리는 24일 페르난도 알론소(스페인·페라리·231점)를 포디엄 정상에 올려며 사흘간 레이스를 마감했다.
코리아 그랑프리는 12개 F1팀과 24명의 F1 드라이버가 출전한 가운데 22일 연습주행과 23일 예선전에 이어 24일 결승전을 마지막으로 모든 레이스를 마쳤다.
무엇보다 국내 최초로 열린 F1 대회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던 상황에서

3일간 16만명이 넘는 구름 관중을 불러들였다는 점에서 '흥행'이라는 첫 단추는 잘 켜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F1 대회조직위는 연습 주행이 펼쳐진 22일 2만명을 시작으로, 예선전이 열린 23일 6만5000명, 결승전 당일인 24일 8만명이 경주장을 찾은 것으로 집계했다.
조직위가 애초 결승전 당일 관람객을 최대 7만명으로 추정했는데, 입장권이 최소 10만원이 넘는 고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흥행면에서는 성공을 거둔 셈이다.

결승전이 시작된 뒤에도 경주장 인근 진입도로에서 경주장까지의 4.8km 구간이 주차장으로 변했고 경기가 끝난 뒤에도 2시간이 넘도록 정체 현상이 빚어졌다. 이 때문에 조직위원회는 애초 배포했던 공짜표인 이른바 '자유이용권' 관람을 부랴부랴 중단하는 등 해프닝도 빚어졌다.
이번 대회는 특히 세계 3대 메르세데스스포츠 이벤트인 F1을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닌 지방도시 영암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지방의 세계화는 물론 서남권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이면서도 F1 대회 레이싱팀이나 드라이버조차 배출하지 못했지만 이번 대회를 계기로 영암은 명실상부한 모터스포츠의 메카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미 추진중인 F1 경주장을 중심으로 모터스포츠 복합레저도시를 건설하는 '영암·해남 기업형 레저도시(J프로젝트)'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기대도 나오고 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전 세계 모터스포츠 팬들에게 대한민국을 알리게 될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대회의 미비점을 보완해 전남이 서남권 국제도시로 커나가는 데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우승을 차지한 페르난도 알론소(오른쪽)가 페라리 대표 스테파노에게 샴페인을 뿜으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보문고 신입생모집
10월20일~25일 원서접수
대한민국 최고의 선생님을 모십니다.
전국 최상위 특목고
전교생 수능 최첨단 영문기숙사 신축
보통고등학교 입학금 제도
2010 교학부 선정 영어리더학교
- 준비된 자율형 사립고
보문고등학교
입학 문의 062-940-8800

서킷은 '합격점' 운영은 '낙제점'

영암 F1이 남긴 것

세계 최대의 모터스포츠 축제인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한국에 처음으로 선보인 영암 F1은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우려를 자아냈던 영암 서킷은 드라이버들로부터 합격점을 받았고 대체로운 부대행사도 대회 개최 분위기를 띄우는데 일조했다. 반면 자유이용권 발급과 불꽃이 된 셔틀버스 등 미숙한 운영과 편의시설 부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대회 개최를 불과 10여일 앞두고 최종검수를 통과한 영암서킷은 예상과 달리 드라이버들을 만족시켰다. F1 서킷 가운데 가장 긴 직선구간과 좁은 피트 진출입구, 주변환경과 어우러진 다양한 코너 등 독특한 코스 설계가 합격점에 일조했다.
첫 대회답게 대체로운 행사도 행사 분위기가 고조에 힘을 보탤다. VIP에게만 주어지는 '피트 워크'를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한 것과 24명 드라이버 전원이 참가한 팬 사인회 및 핸드프린팅은 보기 드문 행사로 코리아 그랑프리의 격을 높였다.
그러나 허술한 준비와 손발이 맞지 않은 운영은 낙제점을 받았다. 개막 후에도 완공

자원봉사자 우왕좌왕 자유이용권 향의 소동 '바가지 상흔' 원성도

되지 못한 스탠드의 H, I, J 좌석은 결국 관람객을 받지 못해 예매 관람객들로부터 큰 불만을 샀으며 이들을 다른 관석석으로 안내할 운영요원이나 자원봉사자들도 제 역할을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전날도가 흥행 저조를 우려, 경기장 인근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 배포한 자유이용권 2만매는 결국 주최 측의 엉뚱한 방침으로 일부 관람객은 몸싸움 끝에 입장한 반면, 일부는 들어가지 못해 큰 혼선을 빚었다. 특히 자유이용권들 들고 입장한 관람객과 표를 예매하고 들어온 관람객 사이에 좌석 점유 다툼도 벌어졌는데도 주최측은 안이한 대책으로 일관했다.
경주장내 셔틀버스는 3일 내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 관람객들은 주최측의 말을 믿고 환승주차장에서 대기했으나 10분 간격으로 운행하던 셔틀버스는 경주장까지 왕

복하는데 2시간이 넘게 걸려 일부 관람객들은 관람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23일 기념품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지지원(20·대학생)씨는 "행사가 끝나고 5시 반부터 셔틀버스를 기다렸는데 2시간 30분을 기다려서 겨우 탈 수 있었다"며 "환승 주차장마다 100대가 넘는다면 셔틀버스는 구경하기조차 힘들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하루 종일 비가 내린 24일 경주장의 주차장은 온통 진흙밭으로 변한데다 곳곳에 물웅덩이가 생겨 관람객들에게 큰 불편을 끼쳤으며 포장지 된 메인스탠드와 기념품점 사이의 보도에도 물이 차오르는 등 배수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메인스탠드 상단 자봉에서는 물이 새는 등 촉박했던 공기만큼 부실공사의 흔적까지 보였다.
편의시설도 관람객들의 원성을 샀다. 일반 편의점에서 볼 수 있는 햄버거와 음료수를 합쳐 7000원, 도시락 1개에 1만원을 받는 '바가지' 장사가 곳곳에서 벌어졌다. 물품보관소는 시설 자체가 없었고 관석들이 쉴 공간도 태부족해 24일 결승전이 열린 날 관석들은 쏟아지는 빗속에서 한없이 헤매야만 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무소속 서구청장 후보

깨끗하고 일 잘했던 사람

김중식 30.26% > 서대석 24.31% > 김선욱 > 18.56%

피조사 선정방법: 무직위 추출 표본크기: 1000명 조사방법: ABS전화면접조사 응답률: 97.5% 전체응답자수: 975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4% 조사기간: 2010.10.08 일조사일 전화면접조사 연구소

행정은 행정인이 해야 됩니다.

이제는 사람을 보고 찍을때가 되었습니다.

- 노인어르신과 서민생활안정에 행정의 최우선
-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지역균형개발사업 적극 추진
- 마케팅 전략과 조거이설 및 서창동 일원 그린벨트 해제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적극 해결

- 출신지: 전남 강진 (62세)
- 광주입고·서울대 졸업
- 행정고등고시 합격
- 경기도청, 내무부(행정자치부)근무
- 광주시 경제통상국장·도시계획국장
-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민선3기)
-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객원교수
- 호남대학교 겸임교수

기호

(전)서구청장

10 김중식

서구청장후보자김중식후원회 (회장: 전승주) 광주광역시 서구 뽕동 981-22번지 (백범당5층)
전화 062-381-1250 광주은행: 138-121-839136 예금주: 서창동 (김중식후원회)

이 신문광고는 정치자금법 제5조에 의거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하기 위한 광고입니다.